

## 21世紀를 向한 獸醫學 Symposium에서

정 창 국

지난 7월 4일 大韓獸醫學會(會長:趙忠鎬)에서는 學會創立 30周年記念行事로 symposium을 개최하였습니다.

主題는 앞으로 다가올 21世紀에 있어서 우리나라 獸醫學의 未來像을 조명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1主題는 獸醫學研究, 제 2主題는 獸醫學의 service market, 제 3主題는 獸醫學教育으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제 3主題에서는 本人이 討議者역할을 맡았던 탓인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主題發表者는 國立臺灣大學의 傅祖慧(Tsu-Huei Fuh) 교수였습니다. 그 발표내용은 1) 주요 서구국가의 獸醫學教育制度和 2) 獸醫學教育의 未來로 크게 구분하였는데 그 내용중 극히 인상적인 사실 몇가지만 적어 봅니다. 여기서 극히 인상적이라는 말은 主觀적인 견지에서서의 인상을 말합니다.

이날 지적된 구미제국의 獸醫學教育年限이 6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장차는 우리도 그러한 方向으로 教育年限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美國에서 獸醫教育을 위해 學生 1人에게 투자되는 教育費는 1年間 44,000\$~50,000\$이라 합니다. 이를 우리 화폐로 환산하면

3,520만원~4,000만원이 됩니다. 서울대수의 대의 경우 校舍 건축비와 차관 도입한 약 150万弗의 教育器材를 제외하고 1年間に 투입되는 총 예산은 4億원정도 이므로 학생 1人當 22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계산으로도 教育費투자의 격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美國에는 약 4만 6천여명의 수의사(1985)가 있으며 이중 76%정도가 個人診療에(小動物 52%, 大動物 24%) 나머지 24%정도는 公務員, 大學, 研究所, 民間企業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의사 4천여명중 24%(4% 小動物, 20% 大動物)가 個人診療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獸醫師의 個人診療人%와 우리나라 臨床獸醫人%의 비율은 76(미) : 24이고, 小動物診療가 54(미) : 4, 大動物診療는 24(미) : 20의 비율이 되며, 診療業에 종사하지 않는 非開業獸醫의 비율은 24(미) : 76이 됩니다.

이같은 비교로 미루어 볼때 우리들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美國의 소는 115百万두, 豚 58百万두, 면羊 12百万두, 馬 8百万두, 犬 55百万두, 고양이 52百万두로 통계가 잡혀있고 大動物診療

獸醫師는 11,040名, 小動物診療는 23,920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大動物診療獸醫師 1人當 大動物數는 17,481두, 小動物診療醫 1人當 小動物數는 4,477두 입니다.

美國의 獸醫界의 현상을 이상적 기준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明白한 차이점들이 표출됩니다.

1) 우리나라 獸醫學教育年限이 짧다. 2)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미달한다. 3) 非開業獸醫師의 數가 開業醫의 數보다 3배나 많은 역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4) 小動物診療에 대한 社會的要求가 매우 적어서 小動物開業은 극히 少數에 지나지 않는다. 5) 大動物診療獸醫師의 數가 小動物診療보다 5배나 많아 美國의 현상과는 반대된다. 6) 우리나라의 家畜數가 장차 크게 증가될 수 없고(市場自由開放) 현상유지가 계속된다면, 매년 배출될 젊은 獸醫師人口는 非診療醫人口 쪽으로 급격히 누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따라서 앞으로는 非開業獸醫師를 위하여 研究能力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獸醫學教育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美國의 Pritchard교수는 美國의 獸醫學教育은 家畜의 個體疾病에만 치중하고 있고 家畜의 飼養 또는 生産에 관한 교과는 거의 등한시하는 결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축산을 위해서는 生産經營管理에 관한 효율적인 集團衛生教育을 강화해서 醫療活動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研究內容으로서서는 家畜의 品種에 관한 生物學的研究, 大氣汚染, 水質汚濁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 毒性化學物質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수의학 분야에 유리한 연구들을 널리 수용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大學校의 연구활동은 基礎生物學教育에도 중점을 두어서 수의학의 전문적 연구과제만을 선택하는 편협을 피해야 할것이고, Biotechnology를 도입한 疾病의 연구, 家畜의 성장, 産乳, 産卵, 발생, 번식 등의 조 절은 앞으로 獸醫學이 社會要望에 응답할 수 있는 분야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獸醫學은 새로운 教科를 첨가하고 교육내용을 개선해 나가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教育時間의 增加, 새로운 知識을 소유하는 교수의 증원, 새로운 기자재의 도입 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또 教育豫算의 대폭 증액이 아울러 요청됩니다.

과연 이러한 必然的인 요구를 어떠한 方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傳教授는 부족한 教育費를 보완하고 獸醫師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며, 교육내용을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두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獸醫學科 學生定員의 감축

2) 獸醫學教育의 Combination

이 Combination이란 뜻은 學校統合이 아니고 學校聯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각 獸醫學科는 현위치에서 현재의 小數敎員으로 特性있는 教育을 서로 分擔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장은 다분히 中國的인 妥協方案같아서 好感이 가기도 합니다.